

# 꿈이든

2021 Vol. 05

인천광역시활센터 | 소식지



인천광역시활센터  
Incheon Metropolitan Self-sufficiency Center

# Contents

인사말	인천광역자활센터 한숙희 센터장	03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조영정 협회장	04
	인천자활기업협회 이왕원 협회장	05
2021 이야기	봄 이야기	06
	여름 이야기	12
	가을 이야기	15
	겨울 이야기	19

## 꿈이든 2021 Vol. 05

발행처	인천광역자활센터
발행인	한숙희
편집인	운영지원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회관 4층
전화	☎032-437-4051~4
홈페이지	<a href="https://injiwon.or.kr">https://injiwon.or.kr</a>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인쇄·편집	(주)해성디자인(☎1661-4744)

꿈이든 5호] 본문 내용은 2021년 한 해 동안 인천광역자활센터 관련 매체에 보도된 내용 근거로 작성·편집되었으며, 이 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한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배포, 복제는 금합니다.

##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

### 인천광역자활센터 한숙희 센터장

어느덧 자활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꿈이든 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자활현장의 소식을 담은 ‘꿈이든 5호’는 서로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많고 그리움이 쌓여가는 만큼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자활센터 소식지 ‘꿈이든 5호’ 발간과 더불어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활현장에서 자활참여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계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자활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 자활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나누는 자활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지만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활 가족들의 희망의 메신저

### ■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조영정 협회장

한 해를 마감하는 때를 맞춰 늘 풍성한 소식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는 선물같은 손님이 바로 인천광역자활센터 소식지 ‘꿈이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호가 발간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일상생활 속에서 올해는 더더욱 소식지 발간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눈물과 땀과 희망이 함께하는 자활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꿈이든 소식지는 자활 가족들의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자활현장은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약자의 약한 고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꿈이든 소식지는 희망을 전하는 비대면 시대의 유익한 알리미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이든’ 소식지 5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인천광역자활센터 한숙희 센터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힘차게 도약하는 자활사업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이웃들의 삶, 희망이며 꿈

### ■ 인천자활기업협회 이왕원 협회장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인천광역자활센터의 소식지 꿈이든(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인천 자활사업의 다양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꿈이든 소식지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꿈과 이상이 실현될 수 있게 든든한 지원을 열어주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현재 인천에 3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자활기업 참여주민 모두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정면으로 돌파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활은 우리 이웃들의 삶 그 자체이고 희망이며 꿈입니다. 자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자활을 통해 웃고 소통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든 소식지에는 이러한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추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고 소중한 자활사업에 앞서서 지원하고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자활센터의 모든 임직원 분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만들어 갈 희망찬 이야기들도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꿈이든소식지 5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봄 이야기 2021 STORY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융합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20년 3월 30일 공공적 경험과 실행력을 가진 14개 기관이 '인천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협력적 협치 체제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참여 기관은 인천광역시활센터, 인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협회,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가 조직들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한다.



## 씨사이드파크 생산 천일염 기부를 통한 소외계층 나눔 활동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은 씨사이드파크 내 폐 염전을 복원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염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된 천일염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여름 씨사이드파크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인천광역시활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1만600kg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 행사를 통해 인천광역시활센터에도 천일염 6,600kg을 기부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나눔에 동참하였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정성을 더해 만든 천일염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더 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봄 이야기 2021 STORY

## ‘자원순환형 자활사업’ 적극 발굴로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여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각종 폐자재에 대한 재활용사업에서 나아가, 아이스팩 재사용, 커피박스 재활용 및 다회용기 세척·공급 사업 등 환경에 대한 기여가 큰 ‘자원순환형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자원순환형 자활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커서 자활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원순환형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설치, 장비 구입, 자활근로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자활근로 카페사업장 공동브랜드화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자활근로 카페사업장을 공동브랜드화한다.

인천 26곳의 자활근로 카페사업장 명칭을 ‘꿈이든카페’로 통일하고 체인점화하는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자활근로 카페사업장 공동브랜드화를 위해 카페 간판교체, 공동유니폼 제작, 자활근로자 공동교육, 사업장별 컨설팅을 실시하며 향후에도 인테리어 개선, 노후 장비 교체, 컨설팅 등 운영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자활근로 카페사업장을 공동브랜드화하면 커피재료와 장비 등의 공동구매를 통해 납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어느 사업장에서나 사용 가능한 쿠폰 도입 등 공동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자활근로 카페사업장의 공동브랜드화는 참여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자립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지역특화 자활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영화 상영을 통한 자활참여자 정서지원 기여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영화공간주안은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자활참여자 50명에게 영화감상과 함께 영화감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제공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자활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일행복 인생영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자활참여자 소양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월 31일에는 미나리, 4월 28일에는 ‘더 파더’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봉만대 영화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사업이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활참여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돌봄 사각지대 ‘확산소화기·가스누출차단기’ 설치 지원

인천시가 화재 취약계층 약 1,478가구에 초기 화재대응과 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확산소화기와 가스누출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확산소화기는 천장에 부착돼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분말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 시 열을 감지한 노즐이 자동으로 제거되며 대량의 소화분말이 뿜어져 나와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강력한 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확산소화기와 가스누출차단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3천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2천만원, (주)대림건설 1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500만원으로 민간협회 및 기업과 공기업에서 총 1억5,500만원을 출원해 지정기탁한 금액을 활용,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광역자활센터가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터로 나가있는 부모와 떨어진 초등학생 및 노약자 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과 직접 조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실정으로 사각지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화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여름 이야기 2021 STORY

##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자활카페 9호점' 오픈



인천스타트업파크 지하1층 자활카페 (꿈이든카페 9호점)가 6월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의 메카, 한국판 실리콘 밸리 육성을 목표로 인천시에서 연수구 송도에 조성한 신생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공간으로 현재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인천형 자활

카페인 '꿈이든카페' 9호점은 인천경제청에서 인천스타트업파크 지하1층에 사업 공간 (62.94㎡)을 무상임대하고 시 자활기금,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5천6백만원을 투입해 설치한 자활사업장이며 인천광역자활센터가 연계하고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한다.

꿈이든카페 9호점이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처음 들어선 편의 시설로 자활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자활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근무자들의 편의 제공과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아이템을 접목한 자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꿈이든을 전국의 대표적인 자활사업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인천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인천여성고용협의회 개최



인천 여성의 고용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인천여성고용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시 여성정책과,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시마을기업지원센터, 인천대, 경인여대, 청운대, 중부대 외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여성취업지원기관의 대응방안 연구과제 보고회와 여성의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청취로 열띤 논의의 장이 되었다.

본 협의회 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성고용현황이 특히 더 불안하고 힘들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 여름 이야기 2021 STORY

## 취약계층과 상생을 위한 인천형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고, 앞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종합 자립 지원 서비스이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출발한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본격 시작되었으며 2004년 6월 인천광역시자활센터가 개소하였으며 현재 9개 군·구에 11개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 자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000년 23개로 출발해 최근 143개로 성장했다. 자활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군·구들은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과 근로 동기 고취 기회를 제공했다.

인천광역시자활센터는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상생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자활일자리 및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 왔다.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자립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 군·구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들은 현장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가꿔 나갈 것이다.



# 가을 이야기 2021 STORY

## 중기공 인천서부지부·(주)에코매스, 인천광역시자활센터에 친환경 빨대 2만개 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와 (주)에코매스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8일 인천광역시자활센터에 ‘친환경 물품(빨대) 2만개’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 물품 친환경 빨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이든카페”에 전달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기부로 자활을 꿈꾸는 참여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지가 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다.





# 가을 이야기 2021 STORY

## 인천공항공사 추석맞이 취약계층 500가구 특산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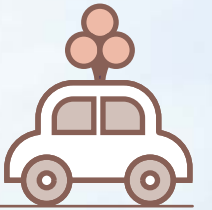
2021년 9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 특산물 나눔 전달식에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권오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 지역본부장, 한숙희 인천광역시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후원물품은 햅쌀, 과일, 구황작물 등 인천지역 농장에서 기른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됐으며 추석명절 시기에 맞춰 인천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되었다.

생활물가가 폭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놓인 지역주민들이 이번 지원으로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며, 본 후원 과정으로 지역 농가의 특산물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선물포장 및 배송을 지역 자활기업을 통해 진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 인천모금회,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경차 전달



2021년 11월 19일 인천문학경기장 북문 광장에서 인천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차량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 때 전달된 차량은 스파크 차량 49대(6억 8천여만 원 상당)로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49곳에 지원되며 대상 시설·기관은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인천광역시학대 피해노인전용쉼터,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청학노인복지관 등 49곳이다.

이번 전달식을 통하여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용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것이다.



# 가을 이야기 2021 STORY

## 저소득층 자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연계형 사업 업무협약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경북광역시자활센터, 농업회사법인(주)한국라이스텍은 기업연계 사업을 통한 자활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 11월 22일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4자 간 상호 발전과 유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및 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한국라이스텍에서 홈플러스(간석점) 내 매장 연계 등 상호 협력하였고, 인천광역시자활센터는 사업 주체 간 협의 및 조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는 홈플러스(간석점) 내에 즉석 착유를 위한 제유소 운영 및 자활생산물(해찬솔참기름) 판매, 제유소 공간 구축, 운영인력 양성 등 자활생산물(해찬솔참기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지원하였다.

광역 및 기업 간 연계사업 모델은 다양한 사업영역 확대와 신규일자리 발굴, 판로 및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공동업무 협약 체결이 자활근로 참여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인천 시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겨울 이야기 2021 STORY

## SK인천석유화학, 홀몸노인 위한 ‘사랑의 집수리’ 100호 돌파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인천서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서구 지역 저소득 홀몸 노인의 집을 고쳐주는 주거복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후원금은 SK 인천석유화학 임직원들이 임금의 1%를 기부해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으로 마련됐다. 본 사업 첫 해인 2018년 16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32가구, 2020년에는 32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도 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12월 현재 총 10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향후에도 인천광역시자활센터와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겨울 이야기 2021 STORY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위한 세차장·카페 문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시,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만든 '세차장과 카페'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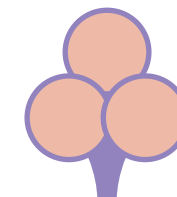
지난 12월 7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꿈이든 세차장'과 '카페'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 세차장 운영에 지역 저소득층 16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것이다.

꿈이든카페 10호점 카페(공항점) 및 일터3호점(세차장) 오픈으로 지역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술숙련을 통한 향후 취업 및 창업의 발판 마련을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자활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성금 10억원 쾌척으로 ESG 발판 마련



인천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2월 28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성금 10억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전달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한숙희 인천광역시자활센터장, 이명숙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전경희 인천아트마켓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10억원을 기부해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금으로 온도탑의 사랑의 온도는 13℃ 올라가게 되며, 전달된 성금은 인천지역 취약계층 생존권 보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 사업에 지원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희망을 안고 다시 비상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 겨울 이야기 2021 STORY



## 인천자활기업협회, 무료급식소에 쌀 전달

인천자활기업협회(회장 이왕원)는 12월 30일 쌀 72포(10kg, 200만원 상당)를 인천시 관내 무료급식소 지원에 써달라며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협회 회원사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취소된 송년회 등의 비용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부된 쌀은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노숙인들과 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제물포밥집'(대표 한용걸 성공회 신부)에 전달되었다.

한편 인천에는 현재 37개 자활기업이 있으며 이중 22개가 인천자활기업협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 실시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시는 소득 초과로 인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2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인천시민은 2022년 1월 7일부터 인천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취약 계층의 빈곤 노출 위험도가 증가하자 시 차원에서 실질적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인 ‘인천 복지 기준선’ 마련과도 궤도를 같이한다.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형 꿈이든일자리사업”이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사업의 성과분석을 거쳐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중·장기적인 인천형 저소득층 일자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주 보고 활짝 웃자!

꿈이든

꿈이  
있는 곳

이상을  
실현하는 곳

든든한 지원을  
여어주는 곳,



**인천광역시활센터**  
Incheon Metropolitan Self-sufficiency Center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4층  
전화 032-437-4051~4 팩스 032-437-2002  
<https://www.injiwon.or.kr>